

## ‘신학교육과 선교’

조 종 남\*

교회선교에 있어 신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신학교육은 곧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교회가 강조하고 요청하는 지도자상과 선교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의 적응성을 찾아 산 신학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50년안에 당면하게 될 큰 변화(World Magatrends)를 예견하고 있다.<sup>1)</sup>

이에 교회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선교와 세계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학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급변하는 선교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신학교육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물음앞에서 몇가지를 제안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 신학교육의 지표(Iodestar)로서의 세계선교

a) 세계선교의 대부분이 신학교육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신학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완수가 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대분부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신학교육기관이 개교회의 개척과 그 교단의 교역자 양성<sup>2)</sup>에 그 목적을 두었다면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세계선교라는 맥락에서 보다는 개교단 확장에 급급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신학교육은 교회가 세계선교의 주요한 기관(Agent)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선적 관

\* 현, 서울신학대학 학장

·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졸업(M. Div)

· 에모리대학교 대학원(Ph.D.in Religion)

· 아주퍼시픽대학교 인문학 명예박사학위(H.L.D.)

1) Howard Snyder, Ten Major Trends Facing the World Churches, World Evangelization, May-June '88참조

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계선교대분부가 신학교육의 지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오늘의 교회는 지역교회(Regional Churches)로부터 세계교회(World Churches)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때문에 교회는 더불어 변하는 선교상황의 도전을 받고 있다.

c) 교회가 교회의 조직적전통(Institutional tradition)을 생각하던데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관심이 세계선교에로 집중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d) 특히,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한국교회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세계교회의 중심과 지도력은 한국교회와 같은 제3세계로 옮겨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한 신학교육에서는 주님의 세계선교의 대부분이 신학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교회의 개척, 성장도 세계선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Kaiser박사가 말했듯이 신학교육에서 세계선교라는 지표(Iodestar)를 잃는다면 그 신학교육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sup>3)</sup>

### II. 선교를 위한 신학교육의 자세

신학교육이 세계선교를 그 지표로 세운다면 이에 뒤따라야 할 과제가 있게 마련이다.

a) 첫째로, 신학교육과정에 “선교학”에 관련된 과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학교육에서는 교회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학문적방법(Academic Approach)이 그 우위를 차지한 실정인 것 같다. 때문에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을 신학교육의 중심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최소한도 “선교학”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제정되어서 선교의 본질, 역사, 사명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한국의 신학대학 가운데 ‘선교학’을 필수로 하는 학교는 한 둘뿐 불과하다). 이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키 위하여 이 과목들은 중진교수들에 의하여 강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b) 더 나아가 “선교학부”를 독립시켜 선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선교대학원(School of Mission)을 세우는 일을 권장할만하다.

c) 선교의 다원화에 부응하여 신학교육의 다원화가 요청된다. 교회의 선교가 holistic한 것으로 요청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회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 섬기는 자들(선교사들)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Ministers)로 이해되며 선교를 위하여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

2) 한국의 신학교 편람참조

3) Robert Coleman, ed. Evangelism on the Cutting Edge참조

문이다.<sup>4)</sup>

d) 선교에 있어서의 신학적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가 신학적문제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이는 선교가 무엇이며 그 메시지와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신학적 개념의 혼돈내지 양극화 현상에서 초래되는 갈등이라 하겠다. 전통적인 전도의 개념이 새로운 선교개념(New Mission), 즉 선교를 곧 사회정의구현, 국제평화, 빈곤제거, 인종분쟁종식 등의 행동으로 이해하려는(Reconceptionalization) 신학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선교와 관련된 개념 곧 전도, 선교, 회심(Conversion), 구원, 해방, 계시, 교회등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성서적으로 정립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심어지는 곳에 활발한 선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선교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신학운동: 해방신학, 제네바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등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것이다.

e) 이를 위하여는 신학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곧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학문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학생들이 머리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이어지는 뜨거운 신앙적 체험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여 그 벅찬 감격이 있을 때 8세기 John Wesley의 전도운동에서 보였듯이 신약성서의 본질이 긍정되고 진정한 선교의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고후 5:14).

### III. 선교를 위한 특별훈련

신학교육은 교과과정에 의한 교실에서의 강의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육은 교회와 신학교육이라는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외에 신학교육을 학생들의 공동체의 생활과 과외 학생활동으로서 선교운동에 접하고 참여하는 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상황에의 접촉
2.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3. 단기 선교활동 참여(국내외)등

### <맺 는 말>

지금까지의 제안이 과거의 신학교육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오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천과 도전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신학교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서의 빛아래서 몇 가지를 제안한 것뿐이다. 앞으로 급변하는 선교상황에 부응하는 신학교육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주신 세계선교의 대부분을 신학교육정신으로 원대복귀하는 것이요 동시에 변천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주도적 세계선교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며 이제 한국 신학교육은 그 응지를 향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4) 엡4:10-13, Snyder, Ibid참조

5) Glasser, ed.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참조